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설립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I



박인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3대 회장

1994년 3월 개최된 협회 정기총회에서 설비건설공제조합 설립 만장일치로 결의

협회 설립 이후 곧바로 설비업체의 재무구조 취약과 정책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배제된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협동조직을 통한 자금 조성 및 이용, 그리고 업계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설비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설비공사업은 소규모 공사 내지 일반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함으로써 일반 건설에 비해 공사금액이 다소 적으며 공사기간의 장·단기성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건설업의 원도급 보증은 보증채권자가 대부분 공공기관인데 비해 설비공사업의 하도급 보증은 보증채권자가 일반건설업자가 됨으로써 보증금 처리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제규정이 설비공사 업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면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 일부에서는 설비건설업계의 권익옹호와 수혜범위 확대를 기함은 물론 출자금의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극대화화 and 대외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설립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조합출자 의무화 이후 전 업체가 출자의무를 이행한 현 시점

에서 업체의 권익 측면에서 볼 때 현 전문조합의 수혜범위보다 좀 더 확대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조합 설립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그리고 이미 대자본을 가지고 있고 경영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기반을 갖춘 전문건설공제조합보다 수혜범위가 축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후 협회에서 1994년 3월 6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설비건설공제조합 독립과 설립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를 함으로써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관계 요리에 건의도 하고 홍보도 계속 해왔습니다.

이 때부터 우리업계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별도로 운영될 경우 독립된 자금력으로 설비업계 발전에 좀더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 신용도와 위상제고에도 많은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비협회가 주도하여야 하고 이동락 회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당시 건교부 김우석 장관께 건의하는 등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협회 설립 이후 곧바로 설비업체의 재무구조 취약과 정책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배제된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협동조직을 통한 자금 조성 및 이용, 그리고 업계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설비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설비공사업은 소규모 공사 내지 일반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함으로써 일반건설에 비해 공사금액이 다소 적으며 공사기간의 장·단기성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건설업의 원도급 보증은 보증채권자가 대부분 공공기관인데 비해 설비공사업의 하도급 보증은 보증채권자가 일반건설업자가 됨으로써 보증금 처리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제규정이 설비공사 업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면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국회,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조합 설립 타당성 설득 작업

이후 1995년 여름, 김우석 장관께서 사임을 하시고 오 명 장관께서 취임함에 따라 우리업계가 추진했던 일들이 한동안 잠정적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 격으로 대일공무(주) 이동락 회장의 사무실에 큰 번고가 생겨서 1995년 9월 5일자로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동락 회장께서는 회장직은 물론 맡고 있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협회의 모든 업무는 서울시회 회장인 박인구 회장이 대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협회는 박인구 회장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가장 중대하고 급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자문해 본 결과 몇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이자,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된 것은 설비공제조합 설립 추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 지금은 정기국회가 개원되어 있고 14대 국회 회기 마지막 이니까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무렵 1995년 9월 7일 건교부 경제국으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전갈이 왔

습니다.

곧바로 건교부를 방문하여 김○○ 실장과 강○○ 경제국장, 박인구 회장 등 3인이 앉아 회의를 시작하는 순간 강○○ 국장께서 “설비협회에서 추진하는 공제조합법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설비업계의 기동과 마찬가지로 협회 회장께서 부도가 났으니 사회적으로도 공신력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되므로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서 “설비업계에서 추진하는 공제조합 설립은 없던 것으로 하자,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는 저 나름대로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을 얘기했지요. 우리 설비협회가 경제단체로서의 구실을 하려면 우리의 자본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에서 공사계약에 따른 각종 보증과 금융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기술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 공동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 금년부터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공사에 외부업체가 집중적으로 진출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금융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논리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만, 강○○ 국장께서 워낙 소신이 강하신 분이라고 소신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설비공사업은 전문공사업종 중 시공기술과 장비·기자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독자성이 강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으로서 우리 설비공사업의 전문적 육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요구되나 자금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설비공사협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오니 참고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께서는 다소 이해를 하는 눈치였으나 강○○ 국장께서는 끝내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저를 “그렇다면 더 이상 건교부에 건의와 부탁을 드리지 않을테니 공제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국회에서 통과되고, 안되는 것에 대해 절대로 건교부를 원망하거나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공제조합법 개정안이 건교부에서 국회로 이송이 될지 안될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지만 강○○ 국장께 또 찾아가서 얘기한들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고, 워낙 시간이 촉박했던 터라 마침 후배한 분이 김○○ 실장과 내의 종 사촌 간이 된다는 것을 알고 후배를 만나서 저의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부탁했더니 “오빠 내가 장담을 못 하지만 성의껏 도와 드리겠다”는 얘기를 듣고 고무된 마음으로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후 일이 잘 풀려서 공제조합법 개정안이 건교부에서 국회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뻐던지 하늘로 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굵이굵이 막힌 큰 산이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험한 산길을 헤쳐나가야 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우선 국회로 가서 건설교통위원장을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회 건교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건교부 기획관리실장이신 유○○ 실장께서 계셔서 뵙고 “설비공사협회 공제조합법 개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해야겠으니 많은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드렸지요. 그렇게 해서 건교위원회 박○○ 위원장을 방문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박○○ 위원장께서도 “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큰 덩어리에서 나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 회원들께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은 불보듯 뻔한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시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또 몇차례 연속으로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고 당위성을 설명드렸더니 어느 정도 수궁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때만 해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많은 반대를 했지요. 심지어는 전문공제조합 위원장이신 김○○ 회장께서도 공공연히 반대를 하고 여론을 확대해 나갈 때였으니까요. 그 후 참다 참다 못해 단들이 만나서 계속 반대여론을 조장할 것이냐는 답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문조합에서는 반대 분위기가 잠잠해져 갔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정도 가지고는 국회통과가 어렵지 않겠는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과거 협회 독립할 때 업법 통과를 위해 이동락 회장과 같이 국회를 다니면서 국회의원을 대하는 방법과 또 그 경험을 되살려서 방법을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살리기도 하면서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 계속〉